

# 모비스, 친환경·자율주행 중무장... 글로벌 영토확장 박차

글로벌 기업 기술제휴 확대  
IAA 참가 등 해외 마케팅 강화  
모터벨라서 '테크데이' 예정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기업과 자율주행 기술 제휴를 통한 영토 확장에 나선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 4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을 내놨다. 외부와의 기술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 ◆핵심부품 글로벌 OE 수주 성장세

현대모비스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제품을 수주하는 등 글로벌OE 대상 수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17억7700불(1조 9881억원)에서 2020년 17억5800불(1조 9881억



현대모비스가 유럽 IAA모빌리티에 이어 북미 모터벨라에 참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수주활동에 나섰다. 이달 초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모빌리티 현대모비스 전시관 전경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억 7800불(7020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세는 북미와 유럽, 중국 등 친환경차 미래 자동차 시장의 잠재적 성장이 두드러지는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전장, 램프, 새시, 전동화 등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북미와 유럽, 중국 등에서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글로벌 영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유럽 북미 시장 공략

현대모비스는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미래차 신기술 홍보와 함께 공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선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모터벨라에 처음으로 참가해 북미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수주 확대에 나선다.

회사는 "이달 초 열린 독일 IAA 모빌리티에 이어 전시회 참가를 북미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현대모비스 신기술을 적극 선보이는 한편, 고객사와 접점을 강화해 글로벌 완성차로부터 수주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북미지역에서 열리는 전시회인 CES에는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지만 현지 모터쇼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모터벨라는 세계 최대 모터쇼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 모터쇼(NAIAS)를 대신해 개최하는 전시회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실내 전시시설 운영이 어렵게 되자 야외 서킷에서 진행되는 체험형 행사인 모터벨라가 이를 대신하게 됐다. 모터벨라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디트로이트 인근 폰타인 M1 중앙광장에서 열린다.

모터벨라가 열리는 디트로이트는 빅3로 불리는 미국 대표 완성차 업체들의 본사와 핵심거점들이 모여 있는 북미 자동차 업계 상징과 같은 곳이다. 모터벨라가 공식적으로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대체하는 전시회로 승격된 만큼 코로나19 이후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이

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잇따른 섀도우로 주춤했던 북미 완성차 업체들이 모터벨라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신차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전시회 기간 중 북미법인과 최근 구성한 핵심고객 전담 영업조직(KAM), 북미연구소를 중심으로 '모비스 테크데이'를 개최한다.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자율주행과 전동화, 인포테인먼트 신기술을 고객사를 초청해 시연하는 행사다.

현대모비스는 모터벨라에서 북미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GV80에 탑재한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신기술을 강조할 예정이다. 북미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SM)과 운전자상태 경고 시스템(DSW), 헤드 업 디스플레이(HUD) 등 북미 고객들에게 특화된 자율주행 신기술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인포테인먼트, 전동화, 새시, 램프 등 총 24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고객사와 관람객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주요 자동차 핵심 부품부터 전동화부품에 이르는 현대모비스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한방에 추석선물 고민 해결!

80% 할인!

명품홍삼 제품을  
국내 최저가격으로 공급보장!

(일부품목, 추석까지이며 일부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 6년근홍삼

제품가격 6천원부터  
제품종류 500 여 개

SINCE 1996

##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25년 역사의 홍삼을 가장 잘 아는 기업

방문 환영 (인기상품 샘플완비)

내방하시는 모든 분들께 사은품 증정!

상품문의 (친절상담)

☎ 02)2163-0044

☎ 010-5183-0048

🗣 ID: KOREAHONGSAM

✉ haetter@naver.com

거래(카드,이체)하시고, 택배로 받으시게 됩니다.  
예금주: 대한홍삼(주) 기업은행 074-063579-01-010

## 부동산 등 산업 전반 규제 폭탄 해외투자자, 中 시장서 발 뻐다

### ● 차이나 뉴스&리포트

블랙스톤, '소호차이나' 인수 포기  
글로벌 금융시장서 中 투자 이견

중국의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에 해외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있다. 미국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중국에 대한 주식 비중을 크게 줄였고, 조지 소로스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비극적인 실수'라고 불렀다.

이번엔 부동산 부문이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은 '소호차이나' 인수를 통해 중국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전일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소호차이나의 주가는 40%나 폭락했다.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은 8억3000만달러가 날아갔다.

1995년에 설립된 소호차이나는 전역에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다. 특히 베이징의 왕징 소호, 쉐먼 소호 등 중국 최대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 랜드마크 건물을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블랙스톤은 지난 6월 소호차이나 인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최

대주주인 판스이 회장 부부의 지분 54.93%를 사들이는 것으로 주당 5홍콩달러, 총 236억홍콩달러(미화 약 33억달러) 규모의 거래였다.

블랙스톤이 소호차이나 인수에 나선 것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진출기 위해서다. 거래가 원활히 성사될 경우 지분율이 9%로 낮아지는 판스이 회장 부부는 이사회에서 물러나고, 블랙스톤이 직접 경영권을 행사할 예정이었다.

M&A가 무산된 배경은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다.

표면적으로는 이번 M&A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법 조사가 걸림돌이 된 것 처럼 비춰졌지만 블랙스톤 입장에서는 현 경제 상황과 거시적인 정책 동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올해 들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사교육과 부동산, 게임업계에까지 산업을 불문하고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FT 전문가는 "중국은 광범위한 정책 개혁과 규제 개선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토를 강화했다"며 "그 결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국 투자를 놓고 이견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눈덩이 같은 규제 강화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